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삼 형*

〈차 례〉

1. 국어교육 연구와 실천
2.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3. 국어교육 연구의 오늘
4. 국어교육 연구의 내일
5. 국어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1. 국어교육 연구와 실천

본고는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해서 먼저 국어교육 연구와 실천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어교육이라는 광활한 영토가 있다고 하자. 이 곳에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 물품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가 되는 금과 은, 그리고 철 등과 같은 지하자원에 비견할 만한 여러 자원들이 묻혀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 들을 캐기 위해서 이 곳으로 몰려들었다. 또한 국어교육 영토에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을 만드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원을 캐는 사람들과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을

* 한양대학교

캐기도 하고, 물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어교육이라는 영토에서 자원을 캐는 일은 국어교육 연구에 해당한다. 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지하자원의 종류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지하자원은 쓰임새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 것처럼, 국어교육의 연구는 거시적인 것도 있고, 미시적인 것도 있다. 국어교육의 이념을 정립하는 연구는 여러 종류의 물품을 만드는 데 두루 쓰이는 지하자원을 캐는 일일 것이고, 국어교사의 성격이 학생들이 국어를 선호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물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자원을 캐는 일일 것이다.

국어교육이라는 영토에서 지하자원을 캐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은 국어교육의 실천에 장에서 쓰이는 물품을 만드는 일이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서 어느 하나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대개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품들은 국어교육의 실천의 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어교육에서 자원을 캐는 연구와 유용한 물품을 만드는 실천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천의 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외에 물품을 만드는 일이 상당 부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화하는 일이 그렇고, 교재를 만드는 일이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원을 캐는 일에 비유할 수 있는 일만을 국어교육 연구로 보고자 한다.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간의 국어교육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어제와 오늘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 연구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에 해당할 것이고, 내일에 대한 예상은 국어교육 연구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교육 연구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메타적인 관점에서 꿰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사람이 개척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연구가 풍성해질 즈음에야 국어교육 연구를 조망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모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방향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논의의 장을 열고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선을 설정해야 한다. 그 선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그어질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이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 개설된 시점을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선으로 잡고 싶다.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라는 것이 국어교육이 학문의 한 분야로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이전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학과'가 아니었다.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개설된 학과가 아니라 교사 양성이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대학원 과정으로서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도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재교육 시스템의 하나로써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 연구자를 길러내는 대학원의 설립은 국어교육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대는 국어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단계이다.¹⁾ 연구자들의 수도 부족하였고,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지 않았다. 이 시대의 성격을 대범하게 말한다면 국어교육 연구보다는 실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교육과정이 만들어지

1) 이 시대의 국어교육 연구는 이응백, 박봉배 등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국어교육 연구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 그에 따라 교과서가 편찬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에서 실천 쪽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국어교육 연구의 오늘

국어교육 연구에서 '오늘'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어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점 외에도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들이 연구자 집단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국어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터전 위에 국어교육 연구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양적인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이래 50편이 넘는 박사 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 3월 현재 대학별 박사학위 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3편
서울대학교	33편
한국교원대학교	13편(?)

국어교육 분야의 제1호 박사 학위 논문이 1990년 발표된 이래 11년 동안에 50편이 넘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으니 매년 5편에 가까운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양적인 면에서 국어교육 연구가 매우 풍성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어교육 연구의 성격을 연구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문학 관련 논문과 비문학 관련 논문을 나누어서 살펴보자. 우선 비문학 관련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큰 특징은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국어학 연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의 제목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 손영애, 國語 語彙 指導 方法의 比較 研究 : 漢字 利用 與否를 中心으로, 1992
 주경희,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1992
 서덕현,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관한 연구, 1992
 이충우, 國語 教育用 語彙 研究 : 國民學校·中學校 國語科 教育用 語彙 選定을 중심으로, 1992
 이은희,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1993
 박수자,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1993
 최영환, 합성 명사의 지도에 대한 연구, 1993
 이종철,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함축적 표현의 연구, 1993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손영애(1992)와 이충우(1992)의 어휘 교육 관련 논문과 박수자(1993)의 교재 구성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어학 관련 논문들이다. 8편 중에서 5편이 국어학 관련 논문들이다. 이들이 국어학 관련 논문임은 주경희(1992)의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 논문의 주제는 '국어 대명사'이다. 뒤에 붙은 '담화분석적'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대명사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담화분석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담화분석적'이란 말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주경희(1992)의 논문은 '국어 대명사 연구'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어학적 연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경희의 논문을 예로 들었지만 서덕현(1992), 이은희(1993), 최영환(1993), 이종철(1993) 등의 논문들도 국어교육 연구의 성격보다는 국어학적 연구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논문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논문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이재승,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1999.2
 이경화, 담화구조와 배경지식이 설명적 담화의 독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1999.2
 김정자, 필자의 글쓰기 태도 연구, 2000.
 박태호, 장르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2000.2
 이주섭,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2001.2
 권순희, 대화지도를 위한 청자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2001.

위의 목록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위에

서 제시한 논문들에서 보았던 국어학 연구적인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경화(1999), 김정자(2000), 권순희(2001)의 논문은 독해 과정, 글쓰기 태도 등 언어사용 그 자체를 탐구한 연구이며, 이재승(1999), 박태호(2000), 이주섭(2001)의 논문은 교육 내용, 교수·학습 원리, 교재 등 국어교육의 실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던 초창기에는 국어학 연구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국어교육 연구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의 연구 영역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다고 해서 바로 그 분야에 수준 높은 학위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연구 업적이 축적된 상태에서 좋은 연구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국어학에 학문적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국어학 연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학 관련 논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음은 초창기 문학 관련 논문들의 일부 목록이다.

- 박대호, 小説의 世界觀 理解와 그 文學敎育的 適用 研究, 1990
- 경규진,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1993
- 박인기, 文學敎育課程의 構造에 관한 研究, 1994
- 김중신,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1994
-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1994
- 최경희, 초등국어,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1994. 2.
- 염창권, 초등국어, 한국현대시의 공간구조와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1994. 2.

이들에게서 눈에 띄는 것은 문학 연구와는 별개로 국어교육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초창기부터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문학 영역의 초창기 논문들이 국어학 연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대호(1990)이나 염창권(1994)의 논문이 문학 연

구의 성격이 강한 것 외에 문학교육 방법(경규진), 문학교육과정의 구조(박인기), 시텍스트 해석(김창원) 등 문학교육 연구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초창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문학교육 연구에서 또 다른 특징은 글쓰기 방식(법)의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이지호, 燕巖 朴趾源의 글쓰기 方法論 研究 : 「熱河日記」의 對象解釋을 中心으로, 1997
최미숙,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 이상과 김수영을 중심으로, 1997
유영희,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1999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1999
김혜영,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 : 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2000

지금까지 발표된 25편의 문학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5편이 글쓰기 방식(법)에 관한 논문이라면 문학교육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국어교육 연구의 오늘에서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의 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시기에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4~5번째 장에는 국어교육에의 적용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최근에 발표된 권순희(2001)의 논문 목차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선행 연구사 검토
- 1.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2. 말하기 태도와 관점의 전체

- 2.1 화자와 청자의 관계
 - 2.1.1 화자와 청자의 개념
 - 2.1.2 화자 청자의 의사 소통적 지위
- 2.2 정체성 구성하기와 태도의 관계
 - 2.2.1 정체성 구성하기 개념
 - 2.2.2 청자에 대한 응답과 태도

- 2.2.3 정체성 구성 과정으로서의 응답의 유형
- 2.2.4 정체성 구성 과정으로서의 태도
- 2.3. 태도와 관점의 관계
 - 2.3.1 관점의 개념
 - 2.3.2 상황과 관점
 - 2.3.3 태도와 관점
- 3.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양상과 방법
 - 3.1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양상
 - 3.1.1 청자 지향 표현
 - 3.1.2 화자 전환 표현
 - 3.1.3 화제 응집성과 관점
 - 3.2 청자 지향 관점의 표현 방법
 - 3.2.1 구조적 표현 방법
 - 3.2.2 비구조적 표현 방법
- 4. 청자 지향 표현의 교수 학습
 - 4.1 현황과 문제점
 - 4.2 교재 구성 원리
 - 4.3 교수 학습 내용
 - 4.3.1 정체성 구성 과정
 - 4.3.2 청자 지향 표현 방법
 - 4.4. 교수 학습 과정
 - 4.4.1 교수 학습 전략
 - 4.4.2 교수 학습 모형
- 5. 결론

이러한 논문의 틀은 문학, 비문학 관련 논문에서 모두 폭넓게 나타나는 구조이어서 하나의 정형을 형성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의 틀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거시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각 논문의 내적인 면에서도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맥락에서의 논의는 다음 장으로 넘긴다.

4. 국어교육 연구의 내일

국어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국어교육 연구에 대해 몇 가지 합의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국어교육 연구의 대상은 무엇이며, 왜 연구를 해야 하는가 등이 우리가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어교육 연구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국어교육 연구를 왜 하는가? 이 문제는 국어교육 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교육 연구는 국어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국어교육 연구의 주안점이 있다면,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존재적 가치보다는 효용적 가치가 더욱 중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다’라는 말을 학교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라고 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지정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설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여기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효용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은 학자에 따라서 유민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하기도 한다. 어느 학설이 학자들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효용가치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어교육 연구의 분야에서는 효용적 가치를 따지는 일이 중요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어느 학교급 또는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어느 학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즉, 효용적 가치를 갖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지어 두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하나의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효용적 가치를 갖고며 효용적 가치를 가진 연구 결과가 존중된다. 만약 효용적 가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존재적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존재적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효용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효용적 가치를 갖으려면 연구의 내용이 국어교육과 함목적적이어야 하며, 연구 방법이 타당해야 한다. 연구의 내용이 국어교육과 함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국어교육 연구가 담당해야 역할에 충실한 것을 말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문학교육이 방향을 제시한 연구나 탐구학습의 개념을 국어지식 영역에 도입한 연구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효용적 가치의 전제가 되는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과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근거의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이 관점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오늘을 바라보자.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국어학 또는 국문학 연구 + 국어교육적 적용'의 구조를 갖는 논문의 틀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연구는 박대호(1990)에서부터 비롯되어 권순희(2001)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정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틀을 갖고 있는 논문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후반부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구조의 논문들에서 뒷부분은 앞부분의 논의와 별개의 것일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앞부분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이다. 앞부분이 완결된 연구라면 뒷부분은 완결된 부분에 덧붙여진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의 중심은 앞부분에 있게 되는데, 국어학이나 국문학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국어교육 관련 논의는 결다리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뒷부분은 국어학이나 국문학의 논문이 아니라 국어교육 관련 논문임을 보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 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구조의 논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구조의 논문은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구조의 논문은 국어교육이란 소위 국어학 또는 국문학에 교육을 단순히 합한 즉, '국어(문)학 + 교육'이 국어교육이라는 관

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국어교육학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거나 없어지게 된다. 전반부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에서 후반부는 교육학에서 가져오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단순 합의 논리가 국어교육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원이 개설되지 않았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으며, 지금도 그 단순 합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방면에서 연출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아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국어교육 전공자가 사범대학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또한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구조의 논문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의 다름 아니다.

물론 모든 논문들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다. 논문에 따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논리적 일관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전반부의 논의가 국어교육에서 탐구해야 할 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전반부가 국어교육에서 탐구해야 할 주제라면 그것 자체로 완결되도록 논문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국어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덧붙이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키마가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으로 연구는 완결된 것이다. 여기에 국어교육적 적용을 덧붙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전자의 연구가 국어교육적 연구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일이다. 읽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즉, 국어교육 연구자들은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어교육적 연구 주제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어의 경어법 체제를 기술하는 일은 국어교육적 연구 주제로서 합목적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어법 오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국어교육적 합목적성을 갖는다. 또한 경어법 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물론 국

어교육에 함목적 적이다. 문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시'를 운동주의 지사적 면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시인의 삶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은 문학연구자들의 관점이다. 그러나 10대들의 감수성도 '서시'를 지사적인 면모가 투영된 시라고 받아들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과연 학생들은 '서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조사하고, 그 받아들이는 진폭이 얼마나 크고 어디에서 그러한 진폭이 나오는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국어교육적으로 함목적적이다. 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능숙한 독자와 초보적인 독자의 읽기 과정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국어교육적으로 함목적적이며, 그것이 어찌 심리학 연구 영역일 수 있겠는가?

국어교육 연구는 국어교육 실천에 지침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어교육적 적용을 논문의 뒷부분에 덧붙이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위에서 국어교육 연구는 효용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뒷부분에 덧붙여진 국어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는 효용성을 갖기 어렵다. 국어교육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덧붙여지는 구조로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위에서 제시한 권순희(2001)의 논문 목차에서 '청자 지향적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형이 효용 가치를 갖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적 적용이 하나의 연구 주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 채택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효용 가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국어교육적 적용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가 되면 연구도 실증적인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학위 논문들이 연구가 실증적이기보다는 사변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문학 작품을 떠나서 문학 연구가 성립할 수 없고 사료(史料)를 떠난 역사 연구가 있을 수 없다면, 국어교육 연구에서 문학 연구의 작품이나 역사 연구에서의 사료의 구실을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행위이며, 그 행위로부터 나온 산출물이며, 교사와 학생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일 것이다. 문학 작품은 문학연구자들에게는

온전한 일차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 연구가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시'를 읽고 느낌을 적은 자료가 일차자료이거나 '서시', 학습자, 느낌 등이 종합된 것이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서시'라는 작품은 문학 연구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문학 교육 연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별로 없거나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 연구가들이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료를 모으고 살펴보듯이 국어교육 연구자들은 학습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학습자들이 반응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모아지고 그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수입하는 일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현재의 국어교육이 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외국 이론에 대한 과대한 의존도이다. 외국의 책이나 논문을 읽고, 그것을 적절히 변용한 것이 대단한 연구이며 업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 모두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되리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으므로 적어도 외국의 이론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5. 국어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국어교육 현장에서 쓸 물품을 만드는 실천의 국면에 참여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연구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2종 도서 개발에도 교사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국어교육 연구는 자원을 캐는 일이다. 자원을 캐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용한 물품을 만들 수 없듯이, 국어교육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어교육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이는 석기 시대에서 광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철기 시대와 석기 시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국어교육 연구에서 이룩한 새로운 발견은 현장의 국어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규진(1993), “반응 중심 문학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
- 권순희(2001), “대화지도를 위한 청자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서울대 박사.
- 권혁준(1997), “초등국어, 문학비평 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신비평과 독자반응이론을 중심으로”, 교원대 박사.
- 김기창(1991), “국어교육,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재제 수용양상 연구”, 교원대 박사.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 박사.
- 김상욱(1995),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
- 김선배(1996), “초등국어,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교원대 박사.
- 김정자(2000), “필자의 글쓰기 태도 연구”, 서울대 박사.
- 김중신(1994), “서사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김창원(2000),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김혜영(2000),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글쓰기 방법 연구 : 시간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노은희(1999), “대화지도를 위한 반복표현 기능 연구”, 서울대 박사.
- 류수열(2001), “판소리 구연성의 매체언어적 의의”, 서울대 박사.
- 문영진(1998), “한국 근대 소설의 신체성 중심의 읽기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박대호(1990), “小説의 世界觀 理解와 그 文學教育的 適用 研究”, 서울대 박사.
- 박삼서(1993), “文學教育的 道敎思想的 背景 研究”, 서울대 박사.

-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박인기(1994), “文學教育課程의 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
- 박태호(2002), “장르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교원대 박사.
- 서덕현(1992),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서 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손영애(1992), “國語 語彙 指導 方法의 比較 研究 : 漢字 利用 與否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 1992
- 송현정(1998), “한국어의 호응관계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서울대 박사.
- 심영택(1995), “문법 지식의 확대 사용 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염창권(1994), “초등국어, 한국현대시의 공간구조와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교원대 박사.
- 원진숙(1995), “작문 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 연구 : 논술문의 지도와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
- 이경화(1999), “담화구조와 배경지식이 설명적 담화의 독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
- 이도영(1998), “언어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
- 이상구(1998),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안 연구”, 교원대 박사.
- 이성영(1994),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
- 이인제(1996), “국어교육,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
- 이재승(1999), “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
- 이종철(1993),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함축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 박사.
- 이주섭(2001),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

이지호(1997), “燕巖 朴趾源의 글쓰기 方法論 研究 : 「熱河日記」의 對象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

이충우(1992), “國語 教育用 語彙 研究 : 國民學校・中學校 國語科 教育用 語彙 選定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의 본질적 개념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고려대 박사.

정재찬(1996), “現代詩 教育의 支配的 談論에 관한 高찰”, 서울대 박사.

주경희(1992)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서울대 박사.

천경록(1998), “국어교육, 읽기 교재의 수정 방안 연구”, 교원대 박사.

최경희(1994), “초등국어,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

최미숙(1997),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 이상과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최영환(1993), “합성 명사의 지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최인자(1997), “한국 현대소설 談論 生産 方法 연구 연구 : 反談論과 文學教育의 聯關性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

최지현(1997), “한국근대시 정서체험의 텍스트조건 연구”, 서울대 박사.

한창훈(2001), “고전시가교육의 가치론적 연구”, 고려대 박사.

허왕욱(2000), “지봉 이수광 시론의 특성과 시교육적 적용 연구”, 교원대 박사.

〈초록〉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삼 형

본 연구는 국어교육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미래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의 하나로 시도되었다. 국어교육 연구의 어제는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기 이전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시대의 특징은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국어교육 실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어교육 연구는 대학원에서 학위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 3월 현재 50여편이 넘는 박사학위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학위논문의 특징으로는 비문학 영역의 경우, 국어학 연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가 그것을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던 초창기에는 국어학 연구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국어교육 연구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의 연구 영역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영역의 경우, 초기 학위논문들로부터 문학 연구와는 별개로 국어교육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초창기부터 기울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학교육 연구에서 또 다른 특징은 글쓰기 방식(법)의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발표된 많은 논문들의 틀이 전반부에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후반부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논문들에서 뒷부분은 앞부분의 논의와 별개의 것일 경우가 많이 있다. 앞부분이 완결된 연구라면 뒷부분은 완결된 부분에 덧붙여진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즉, 국어교육 연구자들은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 의식을 갖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어교육적 연구 주제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어교육적 적용이 하나의 연구 주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 채택될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 도달해야 국어교육 연구의 참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Sam-hye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a topographical map of Korean language education's study and to prospect of the future of it. The pas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s study focused on the practice rather than the study.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ally activate with publication of a doctoral thesis.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 present period is that doctoral thesis has the character of Korean linguistics' study. But it gradually had the author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other feature is the frame of doctoral thesis. Namely, the first part of thesis's content is about Korean linguistics or Korean literature and the second part is ab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econd part is about application of the first part. The problem of this frame is that the first and second part is separate and this is attached to tha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researcher has the 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elf. And the second part is raised one thesi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s study.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s study, the 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tself